쿠니 도모코스 박물관

우리 박물관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대략적 가이드의 도움으로 성 안의 상설 전시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타타 성

타타 성은 1400년경 나중에 독일-로마 황제가 된 헝가리 왕 지기스문트가 건설되었습니다. 1층에 있는 축소 모형 모형을 보시면 물로 보호된 왕성 건물의 15세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터키 전쟁 중에 타타 성은 군사 행사의 현장인 터키 점령의 국경을 지키는 요새가 되었으며, 그 중에 15번의 포위 공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의 아름다움을 지닌 이전 성은 파괴되었으며, 터키 전쟁 이후에 날개 하나와 탑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성 건물은 1954년부터 도시의 박물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박물관의 이름은 18세기 지역 도자기 공장의 책임자이자 아름다운 토기 접시 제작자였던 도모코스 쿠니의 성명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로마 석조 박물관 (라피다리움, 1층)

서기 1세기부터 현재의 타타 시를 포함하는 오늘날의 트란스다뉴비아 지역은 판노니아 속주로서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뉴브 강을 따라 "라임" 경계선의 일부로 부르주아 소도시로 둘러싸인 인근 브리게티오 (현재 Szöny 지역)에 군사 캠프가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석조 갤러리에서 볼 수 있는 석조 기념물의 대부분은 이 지역에서 나옵니다.

조각한/새긴 돌 중 일부는 묘비이고 일부는 제단석입니다.

고인은 바닥에 고인을 기념하는 라틴어 비문이 새겨진 조각된 돌(비석) 위에 얹혀 있으며, 그의 직업, 연, 돌을 놓은 사람, 통치 중인 카이사르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윗부분에 고인과 그 가족의 부조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단 돌은 다양한 신들이 자신들을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해 주거나 소원을 성취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에게 바치는 봉헌 선물이었습니다.

중세 석조 박물관 (라피다리움, 1층)

타타 성 발굴 당시 발견된 라피다리움 내벽에는 난간 파편, 난간 조각과 뒤틀린 창문 칸막이 기둥 등 옛 왕실 성에 속했던 조각품을 볼 수 있습니다. 타타 지역에서 발견된 붉은색 대리석 묘비에는 마스터 마르튼과 그의 아내 마르기트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1492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홀 중간과 외벽에서는 독특한 중요성과 품질을 지닌 중세 수도원과 인근 Vértesszentkereszt 수도원의 석조 기념물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도원의 후원자는 Csák 일족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시토회 수도회 명령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위대한 사원 건설의 시작은 약 12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회는 평면도와 외관이 독특했으며 조각 장식이 매우 풍부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인간 위에 숨어 있는 악을 상징하는 용뱀, 사자와 같은 교회 기둥의 상징적인 동물 형상이 전시됩니다. 문설주에서 선지자의 형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쇠를 쥐고 있는 성 베드로의 형상과 악의 상징인 밧줄에 걸린 사자의 형상도 볼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평일 (1층)

이웃 마을인 Baj 외곽에 있는 Öreg Kovács Hill을 발굴한 결과 주변에 묘지가 있는 아르파드 시대의 고층 건물이 드러났습니다. 옆에 있는 마을의 일부인 마을 주인의 저택도 발견됐다. 제작품들이 중세 시대의 마을 생활을 모방하는 방에서 전시된다.

발굴된 교회와 마당 모형 옆에 16세기부터 집주인의 하인의 집의 제작된 타일 난로, 구석에 있는 소나무 목재된 건물이 보일 수 있다. 이 시대에 난로는 여전히 드물었는데 스토브 타일 조각으로 구성된 풍부한 유물은 매우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은 냄비 조각들로 요리되었던 음식들을 확정할 수 있다. 그 중에 한 쪽은 기장 죽이 있었고 다른 쪽에 고기로 만든 수프가 있었다.

크나이트의 홀(1층)

15세기의 성의 위층에 있는 대각선 궁륭이 있는 홀이며 성의 다니는 길이 내부 마당을 향한다. 복도로부터 홀들은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현재의 조각 장식이 있는 고딕 양식의 창문은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졌습니다.

방의 주요 하이라이트는 난로가 녹색으로 유약되고 성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 조각들로 만들어 재건축되었는 것이다. 난로는 고딕 장식물이며 각 타일은 세련한 부조 조각이다. 아래쪽에는 구운 과자 형 타일들이 있는데 위쪽에는 말등위에 앉아 있는 협객이 창을 손에 드는 형 타일들이 있다. 난로와 홀도 여기부터 이름이 지어졌다: 협객 그림과 반협객이 있는 난로.

홀에서는 박물관 컬렉션의 원본 르네상스 작품들이 보관되어 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상자, 테이블, 도자기 캐비닛들이 가구들로 구성한다. 의상 상자들의 하이라이트는 다양한 색깔이 있는 뮈늬들로 만들어지고 도시 풍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것들은 신부의 의상을 담고 상자 장식을 통해 가족의 지위와 부유도 보여준다.

로맨 룸(브리게티오 벽화, 1층)

다누배 강위에 있는 브리게도 도시에 있는 사관의 집들에 있는 방의 벽화들은 벽에 걸린 그림으로 장식되다. 원래 더 큰 주거용 건물의 부지는 기원후 2세기부터 만들어진 그림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집은 야만인의 침략으로 파괴되었으며 1961년에 그 집이 발굴되었다. 수십 년간의 재건축 및 복원 작업을 거쳐 이제 저희는 홀 전체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다.

방의 모든 표면이 페인트 되고 건물의 요소가 모방되고 벽들이 상형들로 페인트 되어 있다. 사진들에는 ​​파리 심판의 유명한 장면이나 로마 건국 우화 등 그리스-로마 신화의 인기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벽화들은 높은 예술적 수준을 보여주며, 그 지방에서 로마 문화를 주장하고 고귀하고 교육 잘 받은 주인이 누구였는지 분명히 증명한다.

도시가 탄생한다( 지역의 역사 정기적 전시가 2층에 있다)

타타 도시는 1727년부터 Esterházy 가적의 재산이었다. 도시는 18세기에 건설되었으며 이 시기는 도시가 재탄생하는 시기였다. 이 유산을 인수한 József Esterházy 판사가 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도시 역사 전시회는 도시 소유자, 기술자, 연예인, 정치가들의 설명을 통해 그들의 예명을 부각 시키고 도시가 더 인기있게 하고 도시의 현재 이미지를 형성에 기여했다.

전시를 마무리하는 카페에서는 1939년에 촬영한 영화가 자연과 유적이 다양한 도시의 특별한 이미지를 잘 보여줬다.